전 세 계 로 동 자 들 은 단 결 하 라 !

근로자

1 호　　1 월 5 일

평 양　근 로 자 사　1 9 6 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 호 (239)
1964년 1월 (상)

차 례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2)

전환의 해, 1964년! ……………………………………………(9)

1964년 인민 경제 계획과 채취 공업…………조 창덕 (15)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홍 순권 (21)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윤 수 (27)
《제 3 공화국》의 운명……………………………………김 경현 (34)

《순수 예술》과의 투쟁은 사회주의 문학
예술 발전의 절실한 요구……………………………리 충필 (41)

—문 답 학 습—

《도덕적 재무장》론이란 무엇인가 …………………박 충배 (46)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 인민이 더 큰 승리를 달성하며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희망찬 새해—1964년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은 지난 1963년에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업적을 자랑하면서 더욱 광명한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공업 생산은 계속 급속히 장성하고 공업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8%로 장성하였습니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며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여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중공업 부문들에서 공장 설비들이 정비 보강되였으며 생산이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상한 열성과 재능을 발휘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명의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 경리에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새로운 대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을 훌륭히 생산하였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중앙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 산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가 개선되고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제품의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은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였

습니다.

나는 공업, 운수, 건설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 또다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따라 수 많은 청장년들이 농촌에 진출하고 농업에 대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농촌 진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일층 공고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 논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토지와 농작물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62년 영농기에 우리 나라의 전체 논 면적이 54만 정보였는데 지난 봄에는 그것이 58만 정보로 늘어 나고 지금에 와서는 벌써 64만 정보에 달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3년 한 해동안에만도 4,000 여 대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농기계들이 다량으로 농촌에 공급되였습니다. 지난해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6%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농촌 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이미 전기가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3 년 내에 전기가 들어 가지 않은 농촌이나 농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로력적 열성이 제고됨으로써 농촌에서 선진 영농 기술이 더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모든 영농 작업이 제때에 훌륭히 수행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도 기후 조건은 매우 불리하였으나 농업 생산에서 류례 없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곡 총 수확고가 장성하고 특히 벼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대된 결과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풍작은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가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확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우리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이 가져 온 빛나는 결실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입니다.

나는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부단한 앙양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근면한 협동 농민들과 농기계 작업소, 국영 농장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문화 혁명의 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체육 등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은 대담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으로 의학과 생물학의 발전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경락 계통의 발견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더욱 찬란히 꽃 피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찬란한 업적을 쌓아 올린 과학자, 교육자,

보건 일'군, 작가, 예술인들과 문화 전선의 모든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류례 없는 민족적 번영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만발하고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고도로 앙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자랑하며 보람찬 사회주의 새 생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전투적 기개와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훌륭한 앞날을 위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불굴의 의지와 무비의 정열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고 있는 전체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사회 안전원, 로농 적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우리는 금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남조선 형제들과 함께 나누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지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기만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최근 미제와 그 주구들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선거극을 연출하고 마치도 《새 정권》이 남조선의 파국 상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없습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남녘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입니다.

박 정희를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은 입으로는 《자주, 자립》을 떠들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굴종하면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고 있으며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 정희 도당은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조선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끌어 들이려고 온갖 굴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에 불과한 현 남조선 정권에 대하여 인민들이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

도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하여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괴뢰 정권을 타도함으로써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 자립을 위해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내부의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농업 지대와 북조선의 공업 지대를 결합시키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힘을 합하여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강한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기업가, 상인들과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남북의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남녘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쫓겨날 것이며 전 민족의 일치한 념원인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북반부 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60만 재일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공민들에게 새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총련의 지도 밑에 재일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부단히 장성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혁명 동지들과 벗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 전선에 련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릴 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새해에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게 꾸리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 열정으로 물끓고 있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금년도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은 우리의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입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이미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활짝 꽃피게 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이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방직 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색갈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각종 직물들을 더 많이 짜 내며 직물 생산에서 고급 직물과 겨울용 직물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금속 제품, 전기용품, 목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일용 필수품과 문화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편리하게 문화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장, 기름, 두부를 풍족하게 생산하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실과, 채소, 수산물, 산채와 산열매 등을 더 잘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며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대규모 경공업 공장, 지방 산업 공장, 생활 필수품 직장들에서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다 동원하여 소비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소비품 생산 부문에서 연구 사업과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부단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다종 다양한 상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 경리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온갖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논밭에 관수 체계를 수립하며 그 중 논 면적을 1~2 년 내에 70만 정보에 달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산 치수 사업 특히 중 소 하천 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농경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를 부단히 개량하고 정리하며 토지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2모작을 광범히 도입하여 밭농사에서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하며 고원 지대의 농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리화와 함께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로선입니다. 금년에 국가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농기계와 화학 비료, 농약을 농촌에 공급할 것이며 농촌 전기화에 계속 힘 쓸 것입니다. 협동 농장들과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며 화학 비료를 더 효과적으로 시비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고 집약적인 영농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단위 당 수확고를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자급 비료를 더 많이 내며 밭갈이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각종 영농 작업을 제때에 잘 하여야 합니다.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은 영농 기술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밭농사에 더 적합한 종자를 얻기 위하여 종자 개량 사업과 채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모든 논밭에서 정보 당 알곡을 500 키로그람 이상 증수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곡 수확고를 높이고 벼의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곡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인민이 다 이밥을 먹도록 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발전시켜 육류를 더 많이 생산하며 공예 작물 생산도 계속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축성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 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으며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고 농촌에 더 많은 방조를 주어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에서 자체로 진행하던 기본 건설 사업을 앞으로는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협동 농장들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며 농업 현물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하는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할 것입니다.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년에 중공업 부문에서의 중심 과업은 이미 축성된 중공업 기지에 계속 살을 붙이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여 우리의 중공업으로 하여금 자체의 위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켜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과 석탄 채굴량을 훨씬 더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의 발전

소 건설 공사들을 촉진시키고 중 소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하며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술 혁명의 수행을 적극 추진시킬 것이며 철도의 전기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964년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계속 확고하게 견지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인민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 대중 속에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며 부화와 안일, 권태증을 배격하고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명랑하게 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우리의 혁명 기지를 철옹성 같이 다질 것입니다.

나는 새해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또다시 빛나는 공훈을 세우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녀 로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더욱 큰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의 해, 1964년!

7 개년 계획의 네 번째 해, 1964년의 전투는 시작되였다.

철의 기지 송림과 강선의 용해공들, 평양과 구성, 신의주와 개성의 방직공들, 숙천과 문덕의 협동 농민들…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관철하여 지난해 계획 수행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가는 곳 마다에서 결의도 새롭게 새해의 첫 전투에 들어섰다.

지난해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과 관리, 생활과 사상 의식의 전 전선에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우람찬 진군 속에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더욱 정비 보강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더욱 튼튼하게 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또다시 108%로 장성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사도 잘 되였다. 우리의 농촌 진지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전국의 도처에서 그 전 해에 비하여 농업 생산 특히 벼 생산과 그 정당 수확고가 훨씬 증대되였다.

새 체계, 새 방법은 대오의 전진에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고 1963년을 가르쳐 주는 해로 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지도 일'군들의 관리 운영 수준과 지휘 능력은 한층 더 제고되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 났으며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과학 연구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과학자들에 의한 경락 계통의 위대한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였으며 우리 당 과학 정책의 정당성을 온 세상에 유감 없이 과시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만 사람의 심장을 틀어 잡았으며 당과 인민은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로 단합되였다.

100% 참가, 100% 찬성! 지난해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 달성한 이 력사적 승리는 우리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찬연히 빛날 또 하나의 기념비적 사변이였으며 우리 제도와 정권의 강화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형편은 좋으며, 그것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1964년! 이 해는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질 좋고 다종 다양한 인민 소비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더한층 강화될 것이다.

1964년! 이 해의 투쟁은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꿈꾸어 오던 간절한 념원,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아 보자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에로의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하는 장엄한 투쟁이다.

* *

1964년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의 해,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의 해, 천리마의 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비약의 해이다.

그것은 금년에 우리가 해결하려는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과 전망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으며 그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에서 뚜렷이 증시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 당은 한편으로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축성해 놓은 중공업을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려고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금년에 《…우리가 내세운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우리의 중공업 기지를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내며 인민 생활을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는 데 있다.》(《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이 과업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재 형편과 장래 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한 것이며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7 개년 계획의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의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전망 계획의 총적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개별적 시기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게 해당 시기 경제 발전의 구체적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전망 계획의 총적 방향과 개별적 시기의 구체적인 경제 발전 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때에만이 매 시기 각이한 경제 부문들 간의 합리적이며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를 부단히 보장할 수 있으며 선행 시기에 축성한 경제 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 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은 바로 7 개년 계획의 전망적 과업에 확고히 의거한 것이며 그의 첫 3 년간에 달성한 성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일치한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진지를 공고히 한 토대 우에서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에로의 진군을 개시하는 그러한 단계에 처하여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쌓아 올린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대담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중공업 기지는 더욱 보충되고 완비되였으며 자체의 원료 기지에 확고히 의거한 경공업 기지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가일층 강화되였다.

특히 당과 인민이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푼전을 아껴 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 고투하여 이룩하여 놓은 중공업의 토대는 자기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제 와서 우리는 제힘으로 생산한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중공업은 이미 형성된 골간에 살을 계속 붙이고 기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철, 강재를 비롯한 중공업 제품의 증대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위력하고 현대적인 것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축적된 힘과 준비된 태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 오며 더 나아가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급속히 공고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상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조건에서는 중공업의 토대를 계속 확장하는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그를 잘 리용하는 데 주력하며 인민 소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과 자재를 더 많이 생산해 내고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경제 토대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향상 문제를 다 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으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적극적으로 유지하여 나갈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만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건설한 보람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중공업 건설과 축적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의를 더욱 높일 것이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이러한 모든 요구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그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년도 계획은 또한 인민 생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인민 경제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 장성의 비상히 높은 속도와 방대한 기본 건설을 예견한 적극적 계획이다.

금년도 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재료 생산 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공업 생산의 높은 속도 특히 소비품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예견하고 있다. 금년에 우리의 공업 생산은 지난해의 예정 실적에 비하여 121%,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113%, 소비 재료 생산은 135% 장성할 것이다.

공업 생산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하여지고 전면적 기술 혁명을 실현하는 조건에서 본래 그 속도가 매우 빠른 7 개년 계획의 년 평균 공업 장성 속도를 훨씬 릉가하는 이와 같은 높은 발전 속도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은 공업 발전 력사에서 실로 보기 드문 일대 비약이다.

우리는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첫 3 년간에도 물론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유지하였다. 공업 총 생산액은 각각 그 전 해에 비하여 1961년에는 114%로, 1962년에는 120%로 장성하였으며 1963년에는 또다시 8% 더 증가하였다.

원래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의 중심 과업이 이미 조성된 토대를 잘 정비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악적인 책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일부 경제 부문의 발전 속도를 좀 낮추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했던 지난 시기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에 달성한 경제 발전 속도는 아주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그 보다 더 빨리 나아가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여 놓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지난날 발휘한 솜씨 대로 더욱 빨리 달려 나아가며 천리마의 진군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공업 생산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 뿐만 아니라 기본 건설 부문에서도 높은 속도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생산적 건설과 국토의 건설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 건설의 총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126%, 그 중 건설 조립 작업액을 151%로 장성시킬 것이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이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을 릉가하고 있으며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액의 비중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에 대한 총 투자액 중에서는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증

가시키면서도 중공업, 그 중에서도 특히 채취 공업, 전력 공업, 철도의 전기화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대될 것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이러한 방향은 중공업의 장래 발전을 예견성 있게 준비하면서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며 인민 생활과 경제 건설에서 다 같이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금년도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7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금후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될 것이다.

공업과 기본 건설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국가 축적과 인민 생활 향상의 원천으로 되는 국민 소득의 높은 장성 속도가 또한 달성될 것이다. 금년에 국민 소득은 지난해에 비하여 121%로 장성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수입은 108%, 농민들의 실질 수입은 114%로 장성하게 된다.

우리의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에 잘 복무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은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이 올라 감으로써 인민들은 각가지 전기 철제 일용품들과 보기 좋고 맵시 있고 쓸모 있는 목제품들, 아름답고 질 좋은 도자기와 유리 제품들, 각가지 문화용품과 모든 필수품들을 더 많이 공급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보다 윤택하고 부유하여 질 것이다.

실로 금년도 계획은 공업과 농촌 경리, 기본 건설 등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을 예견하는 혁신과 전진의 계획이며 혁명적 대고조의 계획이다.

이 계획의 실현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전반적으로 촉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7개년 계획의 강령적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게 할 것이다.

❊ ❊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인민 경제 발전의 휘황한 전망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달리고 또 달려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며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 담보는 모든 부문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험은 대중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집행에 의식적으로 동원될 때 해결 못 할 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근로자들 속에서 금년도 계획 실행을 위한 사상 동원 사업과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계획 실행에 한결 같이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 조직들이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 정책 집행에서 중심 고리의 장악과 전반적 장악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다.

사업에서 중심 고리의 원칙에 기초한 전반적 장악은 매 시기 제기되는 중심적 과업을 틀어 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업을 다 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당적 령도의 형식이며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 담보이다.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자기 부문의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키잡이를 옳게 보장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의 우월성이 확증된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에 상응하게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제시된 과업 수행을 위한 방도를 대중과 토론하며 실천에서 걸리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착수한 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하여 나아가는 혁명가적 사업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강의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난관 앞에 주저앉아 시작한 일을 중도반단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혁명가의 품성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아가며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 나 끝까지 싸워 이기는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편지에서)

당은 지금 모든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며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이것은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단위들에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계획 규률을 일층 강화하고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계획 실행에서 기관 본위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동원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 특히 협동 생산 과제를 책임적으로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들의 계획 수행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며 모든 자재를 아래에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은 소비품 생산에서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에 적응하게 품종을 확대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제품의 질 제고, 품종의 확대—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예견한 금년도 계획 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 사업을 전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케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개의 제품을 만들어도 거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솜씨와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진 고매한 정신이 깃들게 하여야 한다.

금년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여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는 것이다.

기계와 기술이 없이는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도 없다. 사실 금년도 계획에 예견된 생산 계획과 방대한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로력이 요구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로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고리이다.

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 경

리의 기계화와 채취 공업 및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비롯하여 힘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 당이 이에 달라붙어야 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술 혁신 운동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확대 발전시키는 것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도처에서 기계화, 자동화가 실현되고 새 기술이 적극 도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력 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로력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은 직접 일하는 사람과의 사업인 만큼 지도 일'군들은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특히 직맹, 민청 단체들은 이를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존 설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곳에서 3개월분 이상의 예비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로 생산 확보하며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며 설비를 애호하고 자검 자수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불량 개소를 제때에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은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것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애호 관리하며 절약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된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인민 경제 매개 부문 기업소들에서는 전기를 절약하며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장의 종이라도 아껴 쓰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일'군들 속에서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살며 근면하게 일하는 건전한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1964년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해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에서) 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모든 부문에서 관철하여야 한다.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우리가 일으키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는 조국 통일의 위업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좋게, 더 잘 건설함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성과로써 위압하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자.

1964년 인민 경제 계획과 채취 공업

조 창 덕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1964년도에 채취 공업을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채취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는 것은 당이 제시한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며 나아가서는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공업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의 자체의 공고한 원료, 연료 기지를 축성하기 위하여 당은 채취 공업 부문에 막대한 자금과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채취 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조치로 하여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 석탄 생산은 338%로 장성하였으며 철광석 생산도 그보다 높은 비률로 장성하였다.

특히 작년에 당은 채취 공업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을 1963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규정하고 이 부문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석탄과 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의 생산을 계속 증대시켰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 하였거나 적게 생산되던 광석들을 대대적으로 캐여 낼 수 있는 막대한 원천들을 탐구하고 지금 그의 채굴을 위한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채취 공업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미 달성한 성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공업에 살을 붙이고 인민 소비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냄으로써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일층 공고히 하여야 할 력사적인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앞으로 우리의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내며 인민 생활을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는 데 있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킴으로써만 앞으로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사업도,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우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공업을 한 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석탄 공업과 광업을 선행시킴으로써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제철, 제강 공업, 기계 공업, 화학 공업, 전력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들에 필

요한 광석, 석탄들을 먼저 충분히 생산하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채취 공업을 선행시켜 광석과 석탄을 충분히 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중공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광석이 풍부하여지고 연료와 동력이 풍부하여지면 앞으로 금속 공장을 하나 새로 꾸며 놓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 중공업 건설과 같은 복잡한 과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채취 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켜 석탄과 광석을 더 많이 캐 내는 것은 중공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 뿐만 아니라 당면한 생산의 장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광석과 석탄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식량》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공업의 《식량》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공업과 광업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대규모화되고 급속히 발전하여 나아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 템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당면하게 철도를 전기화하자면 더 많은 철과 세멘트, 석탄이 있어야 하며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위한 각종 비료와 농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많은 류화철, 린회석, 카리, 석회석 그리고 석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비날론,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수지 제품의 대량 생산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거의 모두가 석탄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 공업의 선행은 현 시기 당면한 생산 장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채취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외화 획득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공업에 살을 붙이며 경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계 설비들이 요구되는바 물론 그의 대부분은 자체로 생산 보장될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생산하지 못 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부족되는 일부 기계 설비들과 원유, 생고무, 콕스탄 등을 비롯한 일부 원료들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입하여 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 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외화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수준에서 외화 획득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는 유색 금속들이다.

이와 같이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공업의 첫 공정이라는 일반적 사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채취 공업을 선행시킴으로써만 인민 경제 발전의 현재 수요와 전망적 수요를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금년에 채취 공업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여 이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움으로써 석탄과 광석에 대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당면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그 생산을 계속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채취 공업이 비교적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 하에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전투적 과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무엇이나 다 해 내겠다는 혁명적 열의에 불타고 있으며 채취 공업 부문에 이미 꾸려진 확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와 함께 기계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

일'군들이 이악하게 달라 붙어 사업을 짜고 든다면 우리 나라의 땅 속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는 지하 자원을 충분하리 만큼 캐여 낼 수 있으며 당이 채취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 *

채취 공업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결정적으로 앞세우기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과업은 무엇보다도 우선 지질 탐사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채취 공업의 발전은 지질 탐사 사업의 강화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채취 공업이란 땅 속에 매장되여 있는 자연 부원을 캐 내는 것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얼마 만큼 어디에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가를 알아 내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금, 은, 동, 연, 아연, 석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 부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우리 나라 전 면적의 80% 이상이 유용 광물 분포 지대로 되여 있으며 금, 은, 주석, 마그네사이트, 흑연을 비롯한 일련의 광종들은 그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 꼽히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정확히 탐사하여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탐사 부문에서는 우선 현 가행 광산, 탄광들의 주변 및 심부에서의 탐사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매장량과 채굴 조건, 광맥과 탄맥의 상태를 세밀히 조사 장악하여 적어도 10년 분 이상의 탄량 및 광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처녀지들에 대한 탐사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량강도와 자강도 지대에서의 탐사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함남도 산악 지대에 대한 탐사 사업도 진행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탐사 대상별, 광종별로 선후차를 잘 가리고 탐사 력량을 집중적으로 포치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모든 중요 광산들의 전망을 개척하되 채굴 조건이 유리한 지대에 광량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시기 지질 탐사 사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 우리 나라의 지질 조건에 맞는 새로운 기계 기술과 선진 탐사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시추기를 비롯한 탐광 설비 및 지질 조사 용구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는 동시에 탐사 기계, 부속품 생산 및 수리 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는 현존 기계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리용하며 지구 화학 탐사 및 물리 탐광 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탐사 방법을 일반화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탐사 효률 및 탐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발전 계획을 과학적인 토대 우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과학자, 기술자 및 로동자들 간의 기술적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안,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밀하고 현대적이며 간편한 탐사 기계와 기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질 탐사 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질 탐사 사업에 광범한 군중들을 인입할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에 의하여 조직된 지질 탐사반들의 탐사에 의하여 수천 개의 광상들이 새로 등록된 사실들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채취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해서는 채취 공업 자체 내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 나야 한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업은 전망성이 풍부한 대규모 탄광 및 광산들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중소 규모의 탄광, 광산들을 병진시키며 새로운 후보지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석탄과 철광석 및 금, 은, 동, 아연, 연 등 유색 금속 광물들과 합금원소 광물들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채취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와 같은 전투적인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선결적 문제의 하나는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를 선행시키는 것이다.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를 선행시킴이 없이는 광석 및 석탄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다. 굴진을 진행하는 행정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생산 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고리이다. 건설을 떠난 채굴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심부 채굴 대상이 늘어 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영구갱과 수직갱 건설을 선행시키는 것이 긴급한 문제로 제기된다.

채취 공업에서 갱 건설과 굴진 및 박토의 선행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천에서는 박토를 선행시키고 지하 채굴에서는 굴진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은 마치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선 쪼개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석탄 공업과 광업 부문에서 굴진을 선행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갱 건설과 굴진을 선행시키기 위하여 당은 로력, 자재, 자금, 설비들을 배정함에 있어서 굴진과 채굴의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하며 갱 건설을 전망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확보 탄량과 광량을 부단히 증대시키는 한편 예비 채탄 및 채굴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와 같은 대책은 굴진을 선행시키고 석탄과 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조치이다.

경험은 당의 이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는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부단한 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안주 탄광, 무산 광산, 덕현 광산을 비롯한 일련의 기업소들에서는 당의 이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부단히 장성시켰다.

그러나 일부 탄광, 광산들에서는 굴진의 선행에 대하여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에서는 의연히 목전의 생산량에만 치중하여 굴진 부문의 로력과 설비들을 채굴 부문에 류용하는 현상들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에 굴진이 채굴에 충분히 선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갱 건설과 굴진을 선행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집체적 토의와 비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매장량 분포 습성을 정확히 해명하고 진환 광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갱 건설과 굴진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헛굴진을 없애고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이와 함께 굴진 속도를 일층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광물과 석탄 생산의 증대는 채굴 및 채탄장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는데 이것은 결국 채굴 작업의 속도보다 갱 건설과 굴진의 속도를 더 앞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굴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도 굴진 운동을 강화하고 그에서 얻은 선진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특히는 굴진의 선행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매개 일'군들에게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의 책임성과 자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기본 굴진은 3 년 분, 준비 굴진은 6 개월 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갱 건설과 함께 우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은 강우량이 많고 장마 기간이 긴 우리 나라 기후 조건에서 탄광들의 생산을 파동성이 없이 부단히 장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모든 탄광들에서 년초부터 갱 건설과 병행하여 우수 통로를 굴설하고 배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채취 공업 발전을 선행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탄광, 광산들에서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분 이상 확보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로동자로부터 책임적인 지도 일'군에 이르기까지 기술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계 설비들에 정통하며 그것을 잘 다룰 줄 알 뿐만 아니라 자체로서도 능히 수리할 수 있을 만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채취률을 높이는 한편 광물의 빈화를 적극 방지하며 선광 실수률과 생산되는 광물의 품위 및 석탄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채취 공업 부문에서 생산 장성의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특히 채취률과 선광 실수률을 제고하는 것은 동일한 로력과 자금으로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만약 광업 부문에서 채취률 1%만 높인다면 전국적으로 10만 여 톤의 광석을 더 얻어 낼 수 있다:

석탄 또는 광물들은 재생시키거나 번식시킬 수 없는 채취 공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는 선진 채굴법과 합리적인 선광 공정을 도입하여 한 덩어리의 석탄과 광물이라도 류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 조건에 적응하게 련속 천공 종합 발파법, 분리식 채굴법, 수력 채탄법, 후층맥에서의 대공, 심공, 천공법 등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착암기 대당 락광량과 채취률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화학 시약들을 리용하는 중액 선광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선광법을 대담하게 도입함으로써 선광 실수률과 정광 품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채취 공업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우선 채취 공업에서 생산 장성의 중요 담보로 되는 기술 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 부문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는 로동자들이 대개는 지하 수백 메터의 깊이에서 자연과 투쟁하느니 만큼 일 자체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더 힘들 뿐만 아니라 로동 조건도 더 불리하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들에서는 우리 나라 광산, 탄광들의 실정에 맞는 성능 높은 착암기, 버력 적재기, 운반 설비들과 선광 설비들을 비롯한 많은 기계 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광물은 량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금속 광물로서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다금속 광물들을 하나도 버림이 없이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한 많은 화학 시약들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질 좋고 다양한 화학 시약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 연구

소들에서 보다 능률적인 화학 시약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채취 공업 부문 일'군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산, 탄광 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만 당의 특별한 배려에 의한 높은 지불을 받고 있는 이 부문 일'군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채취 공업 부문의 작업 조건에 적합한 작업복, 로동화를 비롯한 로동 보호 물자들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로동자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리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탄광 지구에 있는 모든 류통망과 편의 시설 부문 일'군들의 봉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채소전을 비롯한 자체의 부식물 공급 원천을 확대하며 매개 가정과 합숙들에서 돼지, 닭 등 가축과 가금들을 더 많이 기르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취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성과 여부는 주요하게는 이 부문을 다른 부문에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로동자들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로동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갱 및 현장 실정을 정확히 료해한 기초 우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번 진행된 전국 석탄 공업 부문 열성자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 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당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각성을 높이며 그들에게 기술을 배워 주고 그들을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서 뒤떨어진 사람은 앞선 사람들의 대렬에 이끌어 올리고, 소극 분자는 적극 분자로, 보수 분자는 혁신 분자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모든 일'군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고 그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자금을 투하하고 로력을 불쿠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당 및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은 우선 자신이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들고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사업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혁명가적 사업 기풍을 확립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당이 채취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홍 순 권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혁명의 계승자이다.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그 민족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교양 받고 준비되였는가 함에 달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대한 교양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력사를 물론하고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김 일성 선집 1953년 판, 제 2 권, 347 페지)

당은 창건 첫날부터 청년들을 우리 혁명 력량의 가장 생기 있고 적극적인 한 부문으로 인정하고 청년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일상적인 지도를 주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민주 청년 동맹의 창립과 발전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모든 성과의 기본 담보로 되였다.

당의 령도 하에 민주 청년 동맹은 창립 후 지난 18년간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정확히 조직 동원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 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 놓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영광스럽고도 자랑찬 길을 걸어 온 민주 청년 동맹은 금년 5월에 력사적인 제 5 차 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민청 제 5 차 대회는 지난 기간 민주 청년 동맹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는 전투적 과업을 토의하게 되며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된다.

민주 청년 동맹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개조는 우리 나라 혁명 정세와 청년 운동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조국이 량단되고 우리 혁명 세력을 분렬시키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당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력량인 청년들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켜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혁명의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공청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 단체들을 통합하여 대중적 청년 조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직접 민주 청년 동맹의 조직을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민주 청년 동맹은 로동 청년, 농민 청년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키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대중적 민주주의적 청년 단체로서 창립되였다.

이 로선의 정당성은 민주 청년 동맹이 걸어 온 승리의 로정이 실증하여 준다.

민주 청년 동맹은 창립 첫날부터 대중적 단체로서의 조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청년 운동을 분렬, 와해시키려는 미제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광범한 청년들

을 민청 조직에 망라시켜 꾸준히 교양육성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 수 있었으며 민주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특히 민청은 로동 계급, 근로 농민들 속에서 배출된 우수한 청년들로 자기의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동맹 내에서 로동 계급의 사상적 영향을 부단히 강화하였다.

또한 민청은 해방 후 청년들의 앙양된 애국적 열성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로력 전선에 적극 조직 동원함으로써 그들을 로동 속에서 더욱 단련시킬 수 있었으며 혁명적 전취물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수호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었다. 이리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우리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서면서 민청 조직은 더욱 공고 발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그들의 정치, 도덕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우리 당이 이 땅에 이룩해 놓은 행복한 제도 하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며 보람차게 일하고 있다.

로동 청년들의 대렬은 더욱 확장되였으며 국가 사회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은 더욱 높아졌다. 어제'날의 소생산자 출신이였던 도시와 농촌의 각 계층 청년들은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적 근로 청년으로 되였다.

오늘 민주 청년 동맹은 250 여 만 명의 청년들을 망라한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새 생활의 창조자로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또한 당의 옳바른 교양과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사상 정치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문화 기술 수준도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민주 청년 동맹은 당이 제시한 사상 교양의 방침에 따라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특히 청년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과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순한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사상,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킬 수 있었다.

민청 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은 각별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 혁명의 근본을 철저히 인식시켰으며 항일 빨찌산의 고상한 혁명 정신과 인민적인 도덕 품성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왔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은 청년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그들을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산리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은 민청 사업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민청 사업 발전을 저해하던 낡은 틀이 청산되고 아래를 도와 주는 혁명적인 사업 체계가 더욱 확립되였으며 민청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방법이 혁명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민청은 생기 발랄하고 힘 있는 조직으로, 혁명 과업을 능동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라 났다.

오늘 민청 대렬 내에는 공산주의적 청년 핵심들과 우수한 공산주의 교양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시대의 훌륭하고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광범한 청년들이 참가하여 생산과 건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으며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우며 서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감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미거로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

오늘 청년들 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여 가고 있다.

학생 청년들의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났다. 학생 청년들 속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확립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정확히 관철됨으로써 그들은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믿음직하게 육성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민주 청년 동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확고히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계급적으로 준비된 청년들의 조직에로 발전하는 것이 당면한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청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는 것은 또한 현 시기 민청 단체 앞에 나선 새로운 혁명 임무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 같이 다지고 전면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만들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의 통일 독립을 하루 속히 실현하여야 할 어려운 혁명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원대한 포부와 희망으로 살며 혈기 왕성한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은 이 숭고한 위업 수행에서 응당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오늘 청년 동맹 앞에 나선 기본 임무는 전체 청년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 당의 혁명 과업 실천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전체 청년들을 지, 덕, 체가 겸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데 있다.

민청 단체 앞에 제기된 이 영예로운 임무는 민주 청년 동맹을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의 조직으로, 보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민청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개조는 조선 청년 운동 발전과 우리 혁명의 촉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우선 청년 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 놓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일하며 배우는 로동 청년들을 핵심으로 한 근로 청년들과 학생 청년들이 단합된 공산주의적 청년 조직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교대자의 조직이다.

청년들의 사상과 지향의 통일—이는

청년 조직의 위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오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계급적 리해 관계에서 동일하며 당이 제시한 혁명 임무를 실행하려는 자각된 사상과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확고히 접수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 당의 사상과 립장으로 철저히 무장되여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로동 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당의 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악하게 관철하는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청년들의 전투 부대로 될 것이다.

청년 조직은 당원의 후비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그의 성격에 적응하게 청년들의 조직 생활과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동맹원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높은 계급 의식과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소유한 당의 믿음직한 후비 력량으로 준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국가,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 복무하는 붉은 인재의 저수지로서 전체 청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기의 조직 교양자적 기능을 비상히 높이게 될 것이다.

민청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에로의 개조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더 한층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청년 조직의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은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 민청 조직에 대한 당의 두터운 신뢰와 믿음의 표시이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기대에 무한히 고무되여 자기들의 생활을 더 한층 조직적으로, 규률 있게 꾸림으로써 자기 앞에 나선 모든 영예로운 임무를 더욱 빛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청 5 차 대회를 앞둔 청년들의 장엄한 로력 투쟁과 새로운 위훈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지금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대회를 앞두고 자기들에게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을 받들고 인민 경제 모든 전선에서, 특히 철도의 전기화와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 김 일성 종합 대학 건설을 위한 공사장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깊이 간직함으로써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선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서, 공산주의 건설자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인간의 특색을 더욱더 남김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 덕, 체를 겸비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되기 위한 청년들의 부단한 준비는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술 문화 혁명의 초소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개조는 남조선 청년 학생 운동의 발전과 그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고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 사변으로 된다.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와 이 제도 하에서 누리는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은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며 그들이 나갈 길을 밝혀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항상 주시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미래의 행복을 찾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자주, 자립, 자생, 자결의 기치 하에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확고히 지향하는 우리 청년들의 통일과 단결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모범으로 된다. 그들은 과거 각이한 처지에 있던 각계 각층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청년 단체인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에 결속되게 될 우리 청년 운동 발전 행정을 크나 큰 기대와 동경 속에서 바라 볼 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 청년들은 정치적 견해, 신앙의 차이 여하를 불문하고 새 생활, 새 정치를 위한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근로 청년을 중심으로 단결될 때에라야만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용감하게 떨쳐 나서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의 발전은 당의 령도 밑에 각계 각층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 개조한 빛나는 총화이다. 이 경험은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후 남북 청년들의 확고한 단결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도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들의 단결된 력량, 근로 인민과 청년 대중의 확고 부동한 단결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북반부 청년 학생들의 통일 단결된 힘과 이에 고무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결속된 힘을 합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높인다면 우리 인민들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인 조국 통일의 위업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 ❇

민청 중앙 위원회는 5 차 대회를 맞이하면서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로력적 위훈을 세우며 민청 조직의 공고화와 공산주의적 수양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당이 매 시기 제기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서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전통이며 큰 자랑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당이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최근 년간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 숭고한 혁명 과업 실현에서 영예로운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자기들의 력사적인 대회를 맞이할 것이다.

당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높은 신임과 큰 기대를 표시하고 건설과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철도의 전기화와 채취 공업, 대자연 개조 사업, 알곡 증산 등 모든 로력 전선에서 기적을 창조하며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온갖 창의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만 당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다.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는 기술 혁신 운동에서 선봉 투사가 되는 것은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온갖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를 분쇄하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기술 혁신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아가며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 나 끝까지 싸워 이기는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체 청년들은 당의 이 가르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국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 투사로 될 수 있다.

민청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당면한 중요 과업은 민청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민청이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무엇보다도 민청 조직들의 전투력에 달려 있다.

민청 조직들이 생기 발랄하게 움직이고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여 힘 있게 이끌어 나갈 때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 그리고 배움의 초소에서 그들의 정치적 자각성과 창조적 열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의 력사적인 대회를 더욱 준비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각급 민청 단체들은 대회를 앞두고 우선 민청원들이 동맹 규약에 철저히 립각하여 자각적이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맹 생활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민청 조직 정치 사업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청원들 속에서 정치 사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는 오늘도 남녘 땅에 둥지를 틀고 앉아 우리의 혁명 위업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또한 우리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켜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청년들 속에서 반제, 반수정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을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가장 주되는 대상인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일제의 남조선 재침 기도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증오할 줄 알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행위와 반동적 본질을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폭로 분쇄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옹호할 줄 아는 그러한 일'군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민청 사상 교양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오직 청년들을 이러한 사상과 립장으로 교양함으로써만 그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 중앙 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불굴의 혁명 투사로 더욱 준비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각급 민청 단체들과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단결된 조선 청년들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는 것으로써 제 5 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 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

윤 수

지난해 자본주의 세계는 브류쎌 회담의 파탄이라는 일대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협상의 결렬은 《자유 진영의 단결》과 《호상 의존》의 배후에 숨어 있던 모순의 폭발이였으며 그들 간의 싸움의 새 단계를 알리는 전주곡이였다.

어제까지만도 《서방 동맹》의 공고성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새로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격렬한 호상 비난은 절정에 달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지배층들은 《자유 진영》의 《적대적 렬강 쁠럭》에로의 분렬에 대하여 부르짖었고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미국 재무 장관 딜론은 《우리는 지금 분렬된 구라파를 가지고 있다.》고 불안에 차 개탄하였고 전 영국 수상 맥밀란은 《구라파가 자체를 작은 폐쇄된 집단으로 되게 하려는 것은 미련하고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출판물들도 《드 골의 행동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서방 동맹을 완전한 혼란에 몰아 넣었다》, 《개명된 드 골은 미국이 서방의 문명을 령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나 싸움은 이것으로써 끝나지 않았다.

전례 없는 시장 소동으로 하여 자본주의 세계는 뒤흔들리였으며 《닭고기 전쟁》에 뒤'이어 《닭알 전쟁》이 나오고 《강철 전쟁》, 년말에는 《쌀 전쟁》이라는 기괴 망측한 새 말까지 나타나 제국주의자들을 불안 속에 몰아 넣었다.

실로 지난해는 시장을 둘러 싼 공개적인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서방 세계 내부에서 메꿀 수 없는 균렬이 더 커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동요가 휩쓸은 한 해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이 그렇듯 첨예화되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 ❋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시장 문제가 첨예화되고 시장 쟁탈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 간 것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가 더욱 격화된 조건에서 제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문제란 자본주의의 필수적 동반자로서 그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의 산물이며 그의 발현 형태이다.

생산 수단이 사자본주의적 소유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생산의 장성을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과잉 상품의 판매 문제는 항상 난관에 봉착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과 자본이 더욱 집중되는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며 시장 쟁탈을 위한 각국 금융 자본의 투쟁은 가일층 치렬하여진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란 경제적으로는 독점 자본주의다. 독점이 완전한 것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그 국가의 시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으로 부터도, 전 세계로부터도 경쟁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전집 제 23 권, 44 페지)

특히 최근 년간에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순과 알륵이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은 전후 년간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발전에서의 불균등성에 의한 력량 관계의 변화, 사회주의 시장의 확대와 식민지 체계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지배 령역의 축소,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던 일시적 요인들의 약화 등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제 2 차 대전 이후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는 시장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적 체계로 형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쑈 독일과 일본, 이태리가 패망하고 영국, 불란서의 경제력이 약화된 사정은 전쟁에서 치부한 미국 독점들로 하여금 서구라파 나라들의 식민지와 세력권 내에 있던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본주의 제국에서 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침략과 략탈의 화신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황금 시대》는 영원한 것이 못 되였다.

이미 방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던 서구라파 제국과 일본은 자국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과 무역에서의 력량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 났다.

그것은 다음의 표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의 공업 생산과 수출 무역 중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지위

	1948년		1957년		1960년		1961년	
	공업	*무역	1	2	1	2	1	2
자본주의 국가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 국	53.4	32.5	46.9	20.8	44.1	18.3	43.0	17.7
영 국	11.2	9.8	9.5	9.3	9.4	8.9	9.0	8.9
불란서	3.9	4.0	4.6	5.1	4.9	6.2	5.0	6.2
서 독	3.6	0.5	8.2	8.6	8.7	10.2	9.0	10.9
일 본	1.0	0.4	3.0	2.9	3.9	3.6	4.6	3.6
이태리	2.6	1.4	3.3	2.6	3.8	3.3	4.0	3.4

* 1947년 자료임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물론 자본주의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감소되였다.

1948년에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53.4%를 차지하였다면 그것이 1961년에는 43%로 저하되였으며 영국은 11.2%로부터 9%로 감소되였다. 반면에 서독은 3.6%로부터 9%로, 불란서는 3.9%로부터 5%로, 이태리는 2.6%로부터 4%로, 일본은 1%로부터 4.6%로 각각 증가하였다.

공업 발전에서의 변화는 대외 무역에도 반영되였다. 1947~1961년 기간 서구라파 나라들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무역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32.5%로부터 17.7%로, 영국은 9.8%로부터 8.9%로 감소되였는데 서독은 0.5%로부터 10.9%, 불란서는 4%로부터 6.2%로, 이태리는 1.4%로부터 3.4%로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서독과 일본의 발전 속도는 미국과 영국을 훨씬 릉가하여 서독의 공업 생산 총액은 영국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외 무역은 미국 다음에 간다.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업 생산 및 무역에서의 지위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그들 호상간의 정치적 력량 관계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의 지휘봉에 복종하던 동맹국들은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자기의 세력권을 요구하여 나섰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호상간에 《경제 령토 재분할》을 위한 투쟁을 불가피하게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력량의 장성,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 제

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제국주의 상품 시장의 축소에 의해 더욱 첨예화되였다.

식민주의 기반 하에서 벗어 난 적지 않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지금 식민주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얼마 전 쎄일론에서는 석유를, 비르마는 은행과 대외 무역과 적지 않은 공업을 국유화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외국 회사들의 석유 리권을 제한하였으며 알제리아는 토지 개혁을 실시함과 함께 불란서 자본가들의 일련의 공장들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점차 구축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진》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 략탈 정책의 후과로 하여 서방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낮으며 지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과 후진 국가들과의 무역 동태

	1953	1956	1961	1962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수출 총액	100	100	100	100
그 중 후진 국가들에 대한 수출	34.9	32.5	28.5	17.2

* 발전된 자본주의 제국에는 미국, 서구라파 제국과 일본이 포함.

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진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무려 절반 이하로 감소되였다. 후진 국가들에 대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축소되고 있다. 이를테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957년의 26억 딸라로부터 현재 20억 딸라로 즉 23%나 감소되였으며 영 련방에 대한 영국의 수출도 축감되였다.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시장을 더욱 협착케 하며 시장 문제를 더욱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또한 오늘 전후 수년간 생산 장성을 자극하던 일련의 림시적 요인들의 작용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독점 자본가들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국외 시장 쟁탈에서 출로를 찾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문제를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 호상간의 모순 및 그의 첨예화는 불가피하며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제국주의 내부 모순에 기초한 항구적인 것이다.

* *

현 시기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시장 쟁탈전은 주로 지불 능력이 비교적 큰 주요 자본주의 나라 내부 시장을 초점으로 하여 관세 장벽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호상 자국의 시장으로부터 외국의 상품을 축출하기 위해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는 한편 자기 《동맹국》의 시장에로의 침투를 위해 각기 상대방의 높은 관세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에서 동맹이나 집단들로 분렬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시장 분할을 위한 각국 독점체들 간의 투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은 어떤 것인가.

첫째 대립은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미국, 영국 간의 관계이다.

서구라파의 6 개 국을 망라하는 《공동 시장》은 그 자체가 제국주의 내부 모순의 직접적 산물이며 그의 형성 발전은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물론 《구라파 공동 시장》은 나토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며 자기 나라들

에서의 로동 운동과 그 세력권 내에서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공동으로 진압하기 위한 반동적 동맹으로서 그것은 초기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동 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한편 금융 자본의 국제적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팽창하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영국을 서구라파에서 배제하며 첨예화되고 있는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 시장》은 그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자기의 이러한 본색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의 높은 관세 장벽과 배타적인 무역 정책으로 하여 서구라파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위는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은 서구라파 패권에 관한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구라파 《공동 시장》—이것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리윤을 약속해 주는 광대한 상품 판매 시장이며 군비 경쟁과 해외 주둔군 유지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재정 원천지이다.

그것은 이 지역이 자본주의 세계 수입 총액의 무려 2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공업 상품 수출의 5분의 1과 농산물 수출의 4 분의 1, 총액 46억 7,000만 딸라(1961년)에 달하는 상품이 이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 준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광대한 상품 판매 시장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품 실현 및 경제 생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경제적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독점체들은 오늘 《공동 시장》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며 서구라파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필사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정치적 면에 있어서 《공동 시장》 성원국들까지도 망라하는 《대서양 공동체》를 형성할 데 대한 그들의 제안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이다.

이것은 《공동 시장》을 그에 용해시키며 《대서양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령도권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그 성원국들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것이다.

미제는 [illegible]의 실현을 위하여 이른바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는 《호상 의존》론을 들고 나와 서구라파 나라들을 유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간파한 드 골은 드 골 대로 미국의 《대서양 공동체》에 도전하여 나섰으며 불란서는 미국의 《위성국》이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다.

미제는 한편 영국을 《트로이 목마》로서 《공동 시장》에 들여 보내여 본-파리 축을 와해시키며 궁극에는 《공동 시장》 자체를 그들의 지배 하에 두려는 술책을 부단히 추구하여 왔다.

그들이 불란서를 제외한 《공동 시장》의 기타 성원 국가들과 막후 접촉을 통하여 15 개월에 걸치는 브류쎌 회담에서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진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불란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것은 당연한 것이였다. 왜냐 하면 경쟁 능력이 강한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은 《공동 시장》에서 불란서의 패권을 박탈하게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브류쎌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구라파 의회 동맹》과 《공동 시장》 재정상 회의들에서 영국의 가입 문제를 재심의하려던 미국과 영국의 완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드 골은 이미 회의장 밖에서부터 《보호주의와 제한주의》의 철문을 닫아 버렸다.

영국은 《공동 시장》에 가입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 가자 5월 9~11일에

리스본에서 《자유 통상 련합》 참가국 회의를 소집하고 동료들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내부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공동 시장》과 대결할 힘을 기를 것을 호소하였으며 미국은 드 골을 고립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오늘 자본 수출과 관세 인하를 통하여 불란서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구라파 시장을 쟁탈하려 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형편에서 그것을 넘어 서며 그 성원국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서구라파에 대한 사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에 서구라파에 대한 미국 사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는 23억 6천만 딸라로부터 76억 5천만 딸라로 증가하였다.

브류쎌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5월에 제네바에서 소집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가트) 회의에서 《가트》 성원국들 간의 관세를 50% 인하할 데 대한 《관세 일괄 인하안》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관세는 지금 《공동 시장》의 관세에 비하여 2~3 배나 되는 조건에서 관세를 50% 인하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대신에 오직 《공동 시장》만을 거의 무방비한 형편에 놓이게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관세 일괄 인하안》과 그에 대립되는, 높은 관세는 많이 인하하고 낮은 관세는 적게 인하하자는 《공동 시장》 성원국들의 《평균 인하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트》 성원국은 6 개월 여에 걸쳐 회담하였으나 아무런 접근 없이 11월 29일 현재로 1963년도 사업을 종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세를 인하할 데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동 시장》은 더욱더 높은 관세 장벽으로써 미국과 영국에 대처하고 있다.

《관세 일괄 인하》 협상이 해결되기도 전에 불란서와 서독, 화란, 이태리 등은 《공동 시장》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가금과 닭알 및 강철 수입세를 인상하였다. 《닭고기 전쟁》, 《닭알 전쟁》, 《강철 전쟁》이란 바로 이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닭고기 관세 인상으로 하여 미국이 입은 년 손실액은 2,600만 딸라나 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손실액보다도 이것이 미국 상품을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련쇄적 반응을 일으킬 것을 더욱 두려워하며 《공동 시장》 성원국들인 서독, 불란서, 화란의 일부 상품 수입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였으며 12월 5일 미국 하원 세입 위원회는 《리자 평형세 법안》을 채택하였다.

7월 18일에 케네디가 《국제 수지에 대한 특별 교서》에서 제기한 리자 평형세란 《외국 정부와 법인 또는 개인이 자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무 증권이나 주권을 외국인이 구입할 때에는 그 실제 금액에 대하여 2.75~15%의 루진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날로 악화되는 국제 수지를 개선하며 금의 해외 류출과 외국 자본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변종된 형태의 관세 장벽인 것이다.

새로운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어 놓은 《닭고기 전쟁》은 더욱 백열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쌀 전쟁》이 일어 날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태리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시장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쌀에 대하여 30~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구라파에 대한 가장 큰 곡물 수출국의 하나인 미국에 대한 《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시장을 둘러 싼 렬강 간의 다른 하나의 경제적 대립은 농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 시장》 성원국들 호상간의

모순이다.

원래 불란서가 《공동 시장》에 참가한 중요한 목적은 서구라파 대륙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그들의 농산물을 미국 잉여 농산물 및 영국 식민지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였다. 불란서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조건으로 영 련방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제도의 철폐를 제기한 것도 바로 자국의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지 않으며 농산물 시장을 계속 확장하기 위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불란서와는 반대로 곡물 수요량의 50% 밖에 충족시킬 수 없는 서독은 《공동 시장》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곡물을 수입하여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높은 관세가 직접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영국과 경쟁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던 것이다.

불란서와 서독의 이러한 모순은 얼마 전에 있은 공동 농업 정책 작성에서도 격렬하게 로출되였다.

불란서는 1963년 말 전으로 공동 농업 정책을 작성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독은 《공동 시장》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쌀의 량을 년 1,200만 톤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불란서와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부지리를 얻기 위하여 지연 전술을 썼다.

불란서는 만약 자기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면 《공동 시장》을 탈퇴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다.

《공동 시장》 성원국은 그의 령역 내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산다는 타협에 도달하여 일시 위기는 수습하였으나 그러한 알륵이 첨악하여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 번째 경제적 모순은 일 미 간의 경제 관계이다.

일 미 간의 경제 관계는 특히 미국의 상품 강매 정책으로 하여 날로 심각화되고 있다.

미국의 상품 강매 정책이란 미국 상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경우에 한해서도 그 차가 6% 미만일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예속적인 상품 판매 정책이다. 이것은 일본 상품을 미국 상품보다 훨씬 낮은 최저 가격으로 입찰하면서도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일본 상품 판매를 불리한 립장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여름 미국은 일 미 경제 회담에서 지어 상품 가격이 외국 상품 가격보다 50% 이내에서 비싼 경우에 한해서도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케 하려고 하였다.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대미 무역이 32%(1962년)나 차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은 일본의 무역과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상품 강매 정책으로 하여 일본은 해마다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결손을 보고 있다. 1962년까지 일본의 총 수입 초과액은 74억 6,400만 딸라(미국 금과 외화 축적량의 46.6%)에 달하였으며 1963년 11월 중만 하여도 무역 결손액은 1억 1,917만 딸라였다. 이것은 일본의 대 미 무역이 전형적인 식민지 무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이 포화점에 도달하고 있는 오늘 일본에서는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2월 7일 일본 외상 오히라가 《일본으로서는 경제에서의 독립이 군사면에서의 역할보다 더 긴급》하다고 하였으며 수상 이께다 역시 12월 10일 국회에서 한 시정 연설에서 《독자적인 방책을 강력히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제의 무역 정책에 대하여 《수치도 체면도 모르는 철면피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동남 아세아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난관으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일 미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극력 제한 방해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영국, 일본, 불란서, 서독은 자체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적극 확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큐바를 봉쇄할 목적 밑에 큐바를 래왕하는 선박에 대하여 《요감시 대상 선박 명단》에 등록하고 그 배에 대해서는 미국 항구 기항은 물론 미국 상품 수송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1963년 1월 이래 큐바에 래왕한 영국, 레바논 등 자본주의 국가 선박은 무려 354 척에 달하였다.

현 시기 시장 쟁탈전의 초점이 주요 자본주의 나라 시장이 되였다고 하여 제국주의자들이 후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략탈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품 판매 시장과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한 치렬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모순이 날을 따라 첨예화되고 있으며 부분적인 경제적 장성, 그들의 온갖 허장성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내부에서는 그의 취약성이 가일층 증대되고 있고 자본주의 자체를 약화시키며 그를 멸망에로 이끄는 요인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현 시기 자본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시장 쟁탈전이 강화됨과 더불어 이를 중심으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그들 간의 관계를 완화하며 밑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는 《서방 통일》을 구원해 보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렬강 간의 이 모순은 결코 완화될 수 없으며 그들의 《동맹》도 공고할 수 없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맹은 강도의 동맹으로서 강도들은 단결할 수 없으며 그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진정하고도 장기적인 리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차 대전 이후 미국을 제외한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적 위기가 아직 없었던 사정은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나마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는 그의 발전 법칙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로 더욱더 줄달음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군사화, 인위적인 경기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에서 상품 과잉은 증대되고 있고 불완전 조업률은 제고되고 있다. 군비 경쟁은 오직 더 큰 경제 위기를 배태하게 할 뿐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일층의 첨예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독점 자본들의 경제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자본주의 전반의 진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더우기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력의 급속한 장성과 이 나라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강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자립 경제 건설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시장 문제를 더욱 곤난하게 하며 제국주의 지반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는 그들 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모든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는 자립 경제를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경제적 《협조》를 부르짖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함으로써 제국주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제 3 공화국》의 운명

김 경 현

얼마 전 서울 장안에서는 이른바 《경사스러운》 례식들이 진행되였다.

이 례식에는 수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으며 그 중에는 《국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밴플리트와 《대통령 아버지》라고 자처하는 오노 반보꾸도 들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개원식》이 벌어졌고 《대통령 취임사》가 발표되였으며 리 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뒤를 이은 소위 《제 3 공화국》이 수립되였다.

례식에 모여 든 신사 제씨들은 이구동성으로 《제 3 공화국》 수립이 《민의를 대변한 대의제로의 복귀》라느니, 《제 3 공화국의 장래는 유망하다》느니 하면서 찬사를 늘어 놓았다.

과연 《제 3 공화국》 탄생이 《한국》의 유망한 장래를 열어 놓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제 3 공화국》을 낳게 하도록 《하느님의 은덕》을 베푼자는 누구이며 그의 목숨이 얼마나 갈 것인가?

오늘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점》을 쳐 보지 않아도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제 3 공화국》은 미제의 첩보 모략 통치의 산물

2 차 대전 후 워싱톤 지배층은 신식민주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첩보 모략 통치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첩보 모략 활동은 워싱톤에 있는 미 중앙 정보국(씨 아이 에이)에 의하여 조직 지도되고 있다.

미 중앙 정보국의 임무를 규정해 놓은 여러 조항 가운데 《정보국은 국가의 리익이 될 임무를 어데서나 자의로 수행할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이러한 임무에 따라 미 중앙 정보국은 자기 나라에서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 암해 공작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까지 한다.

미국 침략 정책의 도구로 되고 있는 중앙 정보국에 대하여 전 미국 대통령 트루맨까지도 《중앙 정보국은 정부 활동의 무기로, 정책 작성의 무기로 되였다.》고 자인하였다. (《에이 에프 피》 1963.12.22)

특히 현 시기 미 중앙 정보국에 의하여 직접 조직되고 지휘되는 침략 책동은 신생 독립 국가들을 예속시키며 예속된 나라들에서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며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선교사》, 《평화군》, 각종 《고문》, 《전문가》, 《외교관》들이 바로 미 《중앙 정보국》의 초병이다.

콩고에서 비극적인 사변이 있기 직전에 콩고 주재 미 대사관원의 수가 무려 2,000 명으로 격증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악랄한 암해 활동을 잘 보여 준다.

1961년 4월 플라야히론에 대한 군사적 침략도 바로 미 중앙 정보국이 조직한 것이였으며 그것을 직접 지휘 감독한 자도 당시 미 중앙 정보국장이였던 알렌 덜레스였다.

최근 년간 페루,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혼듀라스, 도미니카, 토이기, 남부 월남 등에서 일어 난 군사 쿠데타의 지도자는 례외 없이 미 중앙 정보국에 의하여 훈련을 받은 자들이였다.

2 차 대전 후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만도 무려 30 여 차의 군사 쿠데타를 조작하였다.

미국 잡지 《뉴 리퍼블릭》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수적인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군부 및 씨 아이 에이측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1963년 11월 2일 호) 고 인정하였다.

미 중앙 정보국의 첩보 모략 통치는 특히 남조선에서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워싱톤 지배층은 남조선에서 위기에 빠진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음모를 은밀히 꾸며 왔다.

미 고위 정객이 미국 상원에서 《미국은 1 개월 전에 한국에서 군사 혁명의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한 데서도 그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사실 워싱톤 지배층의 지원이 없이는 《국군》의 통수권이 미제의 수중에 있고 미 첩보망과 미 군사 고문들이 거미줄처럼 포치되여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중무장까지 동원하여 감히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에서 조작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지휘봉을 장악한 자도 미 중앙 정보국이였다.

《최고 회의 의원》들의 구성을 볼 때 박 정희를 비롯한 그 대부분이 《방첩대 대장》,《헌병대 대장》 등 미 특무 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미 중앙 정보국이나, 백악관의 명령이 없이는 무엇도 제 마음 대로 할 수 없는 허수아비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요미 우리 신붕》까지도 《최고 회의를 강권으로 뒤'받침 해 주고 있는 것은 미 중앙 정보국》이라고 쓴 것이 우연치 않다.

미제는 《군사 정변》 후 저들의 합법적인 비밀 기관으로 《한국 중앙 정보부》(한국 씨 아이 에이)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거 제각기 부문별로 첩보 모략 활동을 진행하던 《방첩대》, 《헌병대》, 《범죄 수사대》 등을 《중앙 정보부》에 통합하여 첩보, 수사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고 있다.

《미국의 씨 아이 에이는 한국 씨 아이 에이 발족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 씨 아이 에이의 한 공작원이 한국 씨 아이 에이의 사무소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측컨대 한국 씨 아이 에이가 미국에 유익한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를 옆에 앉아서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뉴 리퍼블릭》 1963년 11월 2일 호) 고 미국 출판물들도 숨기지 않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첩보 모략으로 군사 파쑈 정권을 수립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더 큰 분노와 반항을 불러 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였고 세계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도 또한 무서웠다.

이러한 처지에서 그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무마하며 세계 여론을 기만할 목적으로 군사 쿠데타 직후부터 《제 3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민정 이양》이라는 놀음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박 정희, 김 종필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독재에 몇몇 《민간인》들을 끌어 넣는 방법으로 《민의》의 외피를 씌워 군사 독재를 무기한 연장하려고 하였다.

박 정희, 김 종필을 워싱톤으로 호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의 중요한 표현이였다.

워싱톤 지배층은 박 정희를 호출하여 《한 미 거두 회담》이라는 간판 밑에 극진한 환영과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민정 이양》 놀음을 꾸밀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뒤'이어 워싱톤 지배층은 다시금 당지 괴뢰 중앙 정보부장이였던 김 종필을

호출하여 남조선 정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민정 이양》을 위한 모의를 거듭하였다.

김 종필은 미 중앙 정보국장, 법무 장관, 국무 장관 등 워싱톤의 고관들과 밀담하였다.

이 밀담에서 그는 《앞으로 4 년간은 혁명 주체 세력이 민간인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과도적 성격의 민정》을 실시할 데 대한 문제, 《민간 정부의 구조》와 그 인원, 새로 조직할 《정당》의 성격과 구성 성원, 《헌법 개정》,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등 소위 《제 3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훈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미국 통신까지도 김 종필은 《민정 복귀 계획을 포함한 혁명 정부의 앞날의 정치 구상》에 대한 워싱톤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사하였다. (《유피아이》 1962. 10. 30)

당시 서울 《합동 통신》도 《제 3 공화국》 수립을 위한 《민정 이양》 놀음이 워싱톤의 계책에 의하여 감행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남조선에서 《헌법 개정》, 《대통령, 국회 의원 선거》, 《정치 활동 개시》 등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계획은 현재 방미 중인 김 종필 중앙 정보부장의 귀국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1962. 11. 17)

워싱톤의 책략에 따라 《막후적인 외교관》으로 이름 난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버거의 조종 하에 박 정희는 사기와 협잡, 폭압의 방법으로 《국민 투표》를 통하여 괴뢰 헌법을 개정케 한 후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연극을 통하여 소위 《제 3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제 3 공화국》은 미국 첩보 통치 체계를 그대로 본따서 《대통령》의 자문 기관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라는 기구를 두고 첩보 통치 체계를 완비하였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내외에서 수집된 첩보 및 정보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중앙 정보부》의 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비준하는 기관이다. 《개헌안》 87 조에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임무에 대하여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의장은 박 정희이며 위원들도 《중앙 정보부장》을 비롯한 미국의 특무들로 꾸려져 있다.

《제 3 공화국》의 배후에는 미 중앙 정보국의 검은 마수가 뻗치고 있다.

《제 3 공화국》은 워싱톤 지배층이 남조선에 대한 첩보 모략 통치의 산물이다.

이러한 괴뢰 정권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대의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허황한 공담이라는 것은 《제 3 공화국》 지배층이 어떤 사람으로 꾸려졌고 그들이 표방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제 3 공화국》의 계급 구성과 그의 시책

일반적으로 국가란 일정한 경제 토대우에 솟아 있는 정치적 상부 구조로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이며 적대 계급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통치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무기이다.

오늘 부르죠아 국가에는 민주주의 공화국, 의회제 군주국 또는 파쑈적 독재 국가 형태가 있다. 이 국가들은 그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한 줌도 못 되는 자본가, 지주들이 절대 다수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 조작된 력대 괴뢰 정권도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어 왔다.

남조선 괴뢰 정권의 계급적 본질에 대하여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근로 대중을 압박 착취하는 반인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부식하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도구로 되고 있다.》(선집 제 4 권, 1960년 판, 512 페지)

워싱톤의 설계에 의하여 조작된 《제 3 공화국》도 이에 례외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톤 지배층과 남조선 위정자들은 《제 3 공화국》이 《민의를 대변》하였다느니, 《거국(擧國) 내각》이라느니 하며 그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제 3 공화국》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다.

《제 3 공화국》 《국회 의원》의 계급 구성만 분석하여도 그들의 론리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금번 《국회 의원》들도 선행한 괴뢰 국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예속 자본가, 지주, 관료배들로 꾸려져 있다.

괴뢰 국회 의원 175 명 중 이미 그 경력이 판명된 168 명의 사회 계급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자본가	지 주	군 인	관료배	정상배	교 수	언론인	변호사	의 사	계
의 원 수	49	16	31	27	14	17	5	8	1	168
%	29.2	9.5	18.5	16	8.3	10.1	3	4.8	0.6	100

통계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예속 자본가, 지주와 관료배, 정상배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 계급인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한 명도 없다.

자본가 출신 《국회 의원》들의 대부분은 다시 정계에 등장하고 있는 예속 자본가로서 특히 여당인 《민주 공화당》과 결탁된 《개풍 재벌》, 《락희 재벌》 등 구《자유당》계 재벌 출신들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야당계 《국회 의원》으로는 과거 《신민당》, 《민주당》과 밀접히 결탁되여 있던 《삼양 재벌》 계렬 예속 자본가들이 적지 않게 당선되였다.

관료배 출신 《국회 의원》의 다수도 군사 파쑈 정권에 의하여 등용된 구 《자유당》계 상층 분자들이다.

군인 출신 괴뢰 국회 의원들 중 《민주 공화당》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 공화당》계 28 명의 의원 중 《5.16 군사 쿠데타》에 직접 참가한 자는 김 종필을 비롯한 20 명이나 되며 이외의 군인 출신 의원들도 군사 파쑈 집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이번 《국회》에서 교육, 언론인 출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군사 파쑈 정권의 리론적 대변자로서 《군정》 기간에 행정 기관의 상층 공무원, 또는 《민주 공화당》의 요직에 등용되였던 자들이다.

실로 새로 조작된 《국회》는 그것이 지주, 예속 자본가, 정상배, 관료배들의 독점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항을 억압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의 대표가 들어 가지 않은 국회는 결코 인민의 리익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

소위 《제 3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분장해 나선 박 정희도 미제의 식민지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이다.

그가 왜정 때에는 일본군 장교로서 일본 천황에게 갖은 충성을 다하면서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조선과 중국의 애국자들을 탄압 학살한 친일 주구였으며 해방 후에는 미제의 고용 간첩으로 변생하여 미국 특무 기관에 복무하면서 남조선 군대 내의 애국 장병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색출 검거하고 지어 남조선 민주 정당에까지 잠입하여 애국자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을 밀고, 고문, 학살한 더러운 변절자이며 민족 반역자이다.

바로 이러한 《관록》을 가진 자인 까닭에 워싱톤 지배층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위기에 직면하자 그를 내세워 군사 쿠데타를 조작케 하였고 오늘도 계속 그에게 《대통령》 감투를 씌워 남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주구로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괴뢰 국회 의원 계급 구성과 《대통령》의 정체가 바로 이러하기에 《제 3 공화국》이 표방하고 있는 시책에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괴뢰 대통령 《취임사》가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박 정희는 《취임사》에서 《군사 정변》의 《혁명 리념을 계승》하며 《자유 우방과의 뉴대를 강화》하고 《승공 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주, 자립》이니, 《주체 의식의 확립》이니 하는 기만적 구호를 다시금 되풀이하였다.

《승공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조선 인민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민족 간의 불화의 씨를 뿌리며 전 조선을 삼키려는 미제의 민족 분렬 정책과 침략 정책에 복무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승공 통일》이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부르짖는 자는 《승공 통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가 인민들에 의하여 타도된 리 승만의 운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국 통일은 결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조국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남북이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유 우방과의 뉴대 강화》란 구호도 본질에 있어서 친미, 친일 로선을 더욱 강화하자는 심'보다.

말하자면 남조선을 미제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더욱더 예속시키겠다는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 들이자는 것이다.

《한 일 친선》을 고창하면서 《한 일 회담》을 벌려 온 박 정희는 최근 이 《회담》의 마지막 결속을 서두르면서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송두리채 일본 군국주의자에게 내여 맡기고 있다.

오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박 정희의 《대통령 취임》을 그처럼 환영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응당한 식민지로 여기고 벌써부터 종주국의 통치자로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대만을 포함한 일본 합중국》에 편입되여야 한다고 망발한 바 있는 일본 자유당 부총재인 오노 반보꾸라는 자는 최근 박 정희와는 《부자지 간》이라느니, 《남조선은 원양 어업을 할 자격이 없으니》 남조선 어장을 일본에 넘기라고 폭언하였다.

오노 반보꾸의 망언이 남조선 언론계는 물론 괴뢰 국회에서까지 물의를 일으켜 박 정희에게 《왜 일국 대통령이 그처럼 저자세를 취하게 되였는가?》 문책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박 정희는 오노의 망언이 《괘씸하기는 하나》 나의 《취임식》에 친히 왕림하여 호의를 보였으니 용서하자고 말했다.

과시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는 말과 같이 박 정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의부'애비로, 상전으로 어떻게 떠받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박 정희는 친미, 친일 주구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자주, 자립》과 《주체 의식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민족적 외피로 가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립 경제 건설》을 운운하면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계속 구걸하여 나서고 있다.

미국식 《원조》가 식민지 략탈을 위한 올가미라는 것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원조》가 지난 19 년 동안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것은 기아와 빈궁, 무권리, 황폐 뿐이다.

군사 《정권》이 외국 《원조》에 의거하여 자립 경제를 건설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던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이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 하고 죽은 문서장으로 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방패로 《외자 도입 촉진법》을 조작하고 외래 독점체들에게 남조선을 무제한 략탈하도록 내맡기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금번 《국회》는 미국 상전에게 《원조》의 증액을 구걸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하였다.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박 정희가 《취임사》에 들고 나온 구호는 외세에 더욱 아부하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국토의 분렬을 조장하면서 남조선을 더욱더 예속과 파멸에로 몰아 넣으며 파쑈 테로 통치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반인민적 괴뢰 정권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욱 재난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 3 공화국》은 리 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어떠한 정권을 막론하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 하고는 오래 가지 못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인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특히 선거 때면 어제'날의 폭군도 순한 《양》이 되여 자기에게 한 표 던져 달라고 인민들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금번 남조선에서 진행된 괴뢰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와 같은 추태는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선거》에서 군사 파쑈 집단이나 구정치인들은 서로 많은 표를 얻으려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급급하였다.

군사 파쑈 집단은 앞으로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구정치인 대신 《참신》하고 《새 지도 세력》인 자기들이 집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구정치 세력들은 2 년 여에 걸쳐 감행된 《군정》이 빚어 낸 참상들을 폭로하면서 자기들만이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으며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번 《선거》들에서 인민 대중은 그들의 빈소리에 속지 않았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금번 《국회 의원 선거》만 보더라도 과거 력대 《국회 의원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인민 대중의 참가률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력대 《국회 의원》 선거 비률은 다음과 같다.

대 별 (선거 날'자)	참가 비률 (%)	기권 비률 (%)
1 대 (1948. 5. 10)	95.5	4.5
2 대 (1950. 5. 30)	91.5	8.5
3 대 (1954. 5. 20)	91.1	8.9
4 대 (1958. 5. 2)	90.6	9.4
5 대 (1960. 7. 29)	84.4	15.6
6 대 (1963. 11. 26)	72.1	27.9

통계가 명시해 주는 바와 같이 금번 《선거》 과정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더욱 제고되였으며 여, 야

당을 모두 불신, 랭대,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선거하나마나》,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누가 들어 앉아도 마찬가지다》라는 여론이 광범히 류포된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민주 공화당》은 《선거》에서 관권과 사기 협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36%,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23% 밖에 득표수를 날조해 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민주 공화당》의 한 대변인까지도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 또는 정치에 대해 국민이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제 3 공화국》이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명시하여 준다.

남조선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는 《제 3 공화국》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2 년 여에 걸친 군사 테로 통치는 남조선을 헤여 날 수 없는 파국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다.

오늘 남조선 민족 경제는 극심하게 쇠퇴 몰락되였고 인민들은 대중적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류통은 마비 상태에 있다. 《국고》는 텅 비고 외화 보유량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다.

1961년 말 외화 보유량이 2억 7천만 딸라였다면 1963년 8월에는 1억 810만 딸라로 축소되였다.

《제 3 공화국》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밑천도 없다.

금융과 재정난이 절정에 달한 군사 파쑈 집단은 《국회 의원 선거》가 끝난 즉시로 철도 운수 료금을 15% 인상시켰고 각급 학교 입학금 50%, 수업료 20%를 각각 인상시켰다.

갈수록 심산이라는 말과 같이 《제 3 공화국》의 경제 형편은 악화될 뿐이다.

고질화된 《제 3 공화국》 지배층 내부간의 모순과 갈등으로 하여 앞으로 정계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여당인 《민주 공화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 《안전 세력》을 확보하였으나 《사무 당원계》 김 종필파와 《정치 당원계》 윤 치영파 간에 대립과 알륵은 앞으로 요직 안배 문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보다 첨예화될 것이다.

야당들의 대여 투쟁도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야당들은 《4 대 의옥 사건》, 《대일 저자세 외교》, 《부정 선거》 소송 등 대여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로 《제 3 공화국》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 지배층 내부간의 모순으로 하여 발족 시초부터 궁지에 빠지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제 3 공화국》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전망은 암담할 뿐이다.

《제 3 공화국》은 《대의제 정치의 회복》도 아니며 《민정의 복귀》도 아니다. 박 정희가 《의장》 대신 《대통령》이란 명패로 바꾸어 달고 그대로 주저앉은 《군정》의 연장으로서 《민정》의 탈을 쓴 식민지 괴뢰 통치 기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정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며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 3 공화국》은 리 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순수 예술》파의 투쟁은 사회주의 문학 예술 발전의 절실한 요구

리 중 필

문학 예술이 인민 생활에서 노는 역할은 참으로 크다. 인민은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서 오늘의 생활을 보며 인류가 걸어 온 과거를 본다. 그들은 거기에서 생활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을 보며 창조의 씨앗을 찾는다. 진보적인 문학 예술, 사실주의에 기초한 모든 문학 예술은 언제나 인민의 이러한 요구에 보답하였고 인민 생활의 참된 교사로 복무하여 왔다.

그러나 모든 문학 예술이 언제나 이렇게 되여 온 것은 아니다. 매개의 문학 예술이 사회에 복무하는 관계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어떠한 계급이 어떠한 목적에서 창조한 예술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리상을 위한 인민들의 고상한 투쟁에서 그들을 방조할 수도 있고 이 투쟁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생활을 풍부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기형화하여 저렬하고 부패한 데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찌기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과 로동 계급의 당은 문학 예술 사업을 통일적인 당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그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는 새롭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동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문학 예술을 각종 요설로써 중상 모독하고 저들의 반동적이며 허위적인 《순수 예술》을 이에 대치시키면서 사회주의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헐뜯으려 하였고 또 의연히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놀라운 것으로도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부르죠아들의 그러한 행위는 그들의 계급적 처지에서 오는 응당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맑스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사실주의를 떠드는 사람들이 부르죠아적 《순수 예술》의 흔탕 속에 머리를 박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회주의 문학 예술을 오도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레닌에 의하여 신랄히 규탄되였으며 혁명적 현실에 의하여 여지 없이 격파 당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던져진 지 오랜 낡은 오물들이 소생되고 있으며 찬양되고 있다. 한 세기 전부터 부르죠아 나라들에서 부식되여 온 예술에 대한 황당무계한 견해들이 오늘 어떠한 나라들의 신문들과 잡지들에 나타나고 있으며 라지오와 텔레비존을 통하여 류포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미술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겉으로는 사실주의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학생들은 화실에서 추상파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들의 감정과 취미와는 전혀 인연이 없고 오직 생활에서 변태적으로 뒹굴고 있는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퇴폐적인 예술 작품들이 전람관을 장식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확고한 전통을 수립하였고 그것이 부르죠아 예술과는 서로 넘어 설 수 없는 엄연한 계선으로 갈라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예술은 그 자체의 사회적 사명으로 하여 부르죠아적 《순수 예술》과는 결코 량립할 수 없었으며 그것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예술은 진정으로 인민에게 속하는 예술이다. 그것은 마땅히 근로 대중의 생활 속에 뿌리를 박아야 하며 대중을 혁명적인 정신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교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는 인민에게 리해되고 인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그들에게 위대한 창조의 씨앗, 투쟁의 불씨를 안겨 주는 예술을 창조하려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부르죠아 《순수 예술》의 뒤꼬리를 따라 가고 있는 자들은 예술가로서의 인민적 책임감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천만 대중을 격동시킨 불후의 형상들을 창조한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너무나 메마르고 딱딱하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는 그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색정 세계를 대담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력설하고 있다. 이들은 부르죠아 《순수 예술》론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추잡스러운 색정 세계에서 그 어떤 《시》를 발견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자신이 일찌기 마야꼽쓰끼가 평가한 바와 같이 《성'적인 심리병 환자》로 전락되고 있다. 어떤 나라의 한 작가는 《사생활과 시는 혼연 일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가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녀인에게 끌려 그를 음흉하게 뒤따르는 한 시인을 놓고 《그래 그것이 생활에서의 시가 아니란 말인가? 이것이 실로 영원토록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려는 시인의 형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한다.

이런 치사스러운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예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립장이 부르죠아 《순수 예술》론자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무릇 예술은 그것을 낳은 생활이 있고 매개의 예술은 그를 산생시킨 계급의 사람들에 의하여 우선 리해되며 지지를 받는다. 오늘날 퇴폐적인 부르죠아 《순수 예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로동 계급과 혁명적인 인민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또 그들의 감정에 맞지도 않으며 리해되지도 않는다. 일찌기 레닌은 클라라 쩨트킨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로 말하면 표현파니, 미래파니, 립체파니, 또 무슨 〈파〉니 하는 따위의 작품을 예술적 천재의 최고의 발현으로 볼 능력이 없다. 나는 그것들을 리해할 능력이 없다. 나는 그것들에서 아무런 환희도 느끼지 않는다.》

레닌은 이러한 예술은 타기되여야 하며 공산주의자들은 예술이 아무렇게나 제멋 대로 발전하라고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엄격히 지적하였다.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 예술 내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러한 현상들을 못본체 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느 때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공세를 기도하면서 이데올로기 분야에서의 침투를 잊은 일이 없었다. 부르죠아 《순수 예술》은 언제나 이러한 침략적 목적에 복무하였고 그것은 특히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일종의 심리 작전의 효과적인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오늘날 어떤 나라에 침투된 《순수 예술》은 그 자체의 색정적 요소에 의한 유혹으로 생활에서 권태를 느낀 자들의 동물적이며 리기적인 욕망을 조장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술 발전이 아무렇게나 방임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젊은 세대들은 로동을 기피하고 금전에 의한 부르죠아적 행복을 앉아서 바라는 속물로 전락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오늘날 《순수 예술》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자들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며 그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는 전투적 과업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 활동의 기치로 삼고 있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

《순수 예술》은 과연 어떠한 자들의 어떠한 생활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선 《순수 예술》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질은 그것이 현실 생활의 진실한 묘사를 거부하고 한갖 인간들의 동물적이며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의 음탕한 국면만을 그릴 것을 주장하면서 예술에서의 당성과 계급성을 로골적으로 부인해 나서는 데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예술이 사회 생활이나 정치와는 무관계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설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예술의 교양적 기능이나 인민에의 복무와 사명을 전적으로 부정해 나서며 예술은 오직 자기 외의 목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데로부터 그들은 예술에서 사회적 투쟁의 묘사를 거부하며 현실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미》, 《순수한 형식》의 탐구를 지향한다.

관념론에 기초한 모든 예술, 착취 계급들의 예술에는 다 같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러한 요구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르죠아 예술에서의 이러한 요구성은 제국주의자들이 극도로 반동화되던 지난 세기 후반기부터 더욱 로골화되였다.

착취 계급들이 예술에 이러한 요구성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원래, 예술은 인민 대중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모순의 근원을 알게 하며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그들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진보적 계급은 예술을 생활 혁신의 한 개 수단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아 왔다. 두 말할 것 없이 이러한 데 복무하는 예술은 언제나 당대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아 왔다. 근로 대중에 대한 영원한 착취를 꿈꿔 온 지배 계급들은 예술을 통하여 무서운 사회악의 진정한 근원이 밝혀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그 어느 시기의 통치 계급보다도 더 불안에 싸일 사회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그들의 더 없이 방종해진 생활과 그 엄청난 재부가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의 루적이며 매일 매시각 수천만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회적 빈궁과 고통을 들씌우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예술이 이 모든 사회악의 근원을 뒤집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때에는 수천만 근로 대중이 요지경에서처럼 《공산주의의 유령》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 무서운 사상이 전 사회를 휩쓸어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를 마지막 죽음에로 이끌어 갈, 사회적 혁명에로 그들을 불러 낼 것이 아닌가…

사실 상 오늘날 극도로 반동화된 일련의 제국주의 나라 부르죠아들은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와 불안을 간단 없이 느끼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 마침내 병'적인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처지가 한편으로 오늘의 부르죠아 예술 사상과 예술에 반영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예술이 객관적 현실을 묘사하지 말며 어떠한 사상도 담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그들의 예술이 반영하는 것은 부르죠아적 생활이며 부르죠아적 인간 관계와 도덕 관계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추악한 것이 적극적으로 비호되며 합리화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정상적인 인간 관계나 인간성은 여지 없이 모욕되고 있다. 그들은 도덕도 예술을 위해서는 한갓 거치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무자비하게 파괴되여야 한다고까지 선언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부르죠아 사회의 모순을 가리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한 리상을 버리고 영원한 노예의 운명에 순종하다가 무의미한 한 평생을 끝마치게 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순수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불리는 모든 작품들의 전편에 가득 차 있는 그처럼 치사스러운 색정 세계의 묘사는 바로 이러한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

《순수 예술》론자들이 떠드는 《초계급성》, 《무당파성》의 본질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아무리 예술의 계급성을 부인하려 해도 그들은 총적으로 부르죠아적 생활과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립장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술은 배부른 자들의 기분에는 맞지만 당장 오늘의 생계 문제가 걱정되는 수천만 근로 대중에게는 필요치 않으며 아편과 같은 해독물로 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근로 대중의 의지와 감정과 사상을 통일시키는 진보적 문학 예술은 부르죠아지에게 있어서는 정수리에 내려지는 철추와 같은 것으로 된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부르죠아들은 창작의 《절대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그것이 일단 진보적 예술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탄압하며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는 작가,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 사실 상 부르죠아 사회에는 창작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르죠아 예술인들의 《자유》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독점 자본가들의 돈'주머니에 매수된 《가장된 예속에 불과한 것이다.》

《순수한 미》, 《순수한 형식》을 탐구한다고 하는 부르죠아 예술인들의 다른 한 주장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아름다운 형식이란 사실주의 예술에 있어서는 객관적 내용과의 유기적인 통일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원래 내용을 떠난 형식이란 공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형식은 언제나 현실적이며 내용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 예술》론자들은 전혀 황당무계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추상적인 세계》,《관념적인 세계》에서 그 어떤 순수한 것을 탐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기형적인 사물들과 형식을 조작해 내고 있다. 그들은 예술을 통털어 그 어떤 유미적인 형식의 표현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술의 기초로 되여야 할 현실의 구체적인 형상적 반영을 부인하며 지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 처음에는 《순수한 선》, 《순수한 음》, 《찰나적인 미》를 탐구한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암호적인 시, 기하학적 도형의 착잡한 타렬로 된 그림, 무선률 음악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은 이런 정도로써도 만족하지 않는다. 마침내는 화면에 천 쪼각과 나무 쪼각을 다닥다닥 붙여 놓거나 물 우에 흩어진 잉크를 복사해 놓고 거기에 그 어떤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댄다. 심지어 동물들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비명, 기계의 소음을 뒤섞은 《음악》을 조작하며 허두도 종말도 줄거리도 없는 문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순수 예술》은 그 자체의 본질로 하여 결국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것에 그 어떤 신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다름 아닌 정신 착란자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미'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는커녕 반대로 혐오감과 착란을 야기시킬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참된 흐름을 가늠할 수 없게 하며 보다 밝은 래일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극도의 허무감과 염세 기분을 자아내게 할 뿐이다.

이러한 예술은 부패와 타락의 절정에 도달하여 생에 대한 아무런 뜻도 희망도 가지지 못 하는 부르죠아 억만장자들의 몰취미가 어떤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근로 대중을 략탈하여 포만할 대로 포만해진 그들은 아무런 창조도 모르는 공허한 생활 속에서 범죄, 음탕, 포식을 질탕치듯 하면서 바라는 것이란 오직 저주 받은 생명의 하루하루를 이어 갈 새로운 《자극제》 뿐이다. 끝 없이 련속되는 방종한 생활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결합되여 그들 속에서 극심한 염세 기분과 몰취미를 빚어 내였다. 그들은 벌써 객관 세계의 정상적인 사물에 증오를 느끼면서 병'적인 환각, 환상의 세계에로 달아 나고 있다. 부르죠아 예술이 조작하고 있는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는 각종 사물은 바로 이런 기분의 반영일 따름이다. 거기에는 사실 상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으며 어떠한 신비로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예술은 결코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부르죠아지의 운명이 몰락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영원히 몰락하고 말 것이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순수 예술》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가 심각화되고 부르죠아지가 이미 사회 발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된 그러한 력사적 환경에서 조장된 반동적인 예술 사상이다. 그것은 예술 발전을 위한 아무런 긍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진보적인 예술이 이룩하여 놓은 모든 원칙들을 로골적으로 부정하면서 예술 자체를 말살하려는 해독적인 작용을 놀고 있다.

그런데 예술성을 위해서 《순수 예술》에서 배워야 한다고 떠드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의 전투적 요소를 거세하고 그것을 단순한 오락물로, 속물들의 위안'거리로 전락시키려는 어리석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 예술》은 쉬파리와도 같이 언제나 부패한 곳을 찾아 다닌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교양을 약화시키고 생활에서 권태증을 느낀 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것은 발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적인 예술의 기치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자체의 사회주의적 문화 전통을 찬란히 개화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결코 발판을 마련하지 못 한다. 인민을 위한 립장을 떠난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 무릇 선진적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창조된 불후의 걸작들은 그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그 높은 열정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시대와 인민의 절박한 념원을 떠나서 치사스러운 색정 세계의 묘사에서 《영원한 것》, 《전 인류적인 것》을 찾자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을 배반하고 몰락하는 계급과 한 길 우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이란 무엇인가

오늘 멸망하여 가는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위대한 영향력에서 《서방 문화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사상 전선에 온갖 추악한 부르죠아 《리론》들을 다 끌어 모으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론도 바로 이러한 《리론》의 하나로서 지금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최신 류행을 자랑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모든 반동들, 펜타곤과 나토의 이름난 살인 장군들, 기시, 프랑코 등에 이르기까지 판 박은 파쑈 분자들이 이 오물을 전파하기 위한 운동에 련합되였으며 록펠러를 비롯한 미국의 억만장자들과 일본의 미쯔이 등 독점 재벌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운동은 이미 미국의 미시간주 마키나크섬을 비롯한 서서의 꼬시, 최근에는 일본의 도꾜 등에 자기의 《참모부》를 두고 많은 출판물 및 예술 등 온갖 선전 수단을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류포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괴뢰들이 떠들고 있는 《도의 재건》도 바로 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도덕적 재무장》론이란 어떤 것인가?

이 《리론》은 1938년에 미국의 목사 프랭크 부크만에 의하여 창시된 것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한 류형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생활에는 《절대적 성실성》, 《절대적 순결성》, 《절대적 자기 희생》, 《절대적 사랑》 등 이른바 네 가지 《도덕적 표준》이 있는데 사회적 불평등과 고통이 소멸되고 《만민 복리》의 리상 사회가 실현되자면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도덕적 표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설교자들은 《사람은 사회의 개조에 앞서 자기 완성에 노력》해야 하며, 《인간 자신이 개변되지 않는한 사회적 및 경제적 변혁도 무용》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요컨대 계급 사회의 사회적 악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마음의 혁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에 폭로 분쇄된 《계급 협조》론의 재판에 불과하며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착취 사회에서 《절대적 도덕 표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 어떤 《도덕적 완성》에 의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의 차가 근절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착취자, 압박자들에게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열렬한 적개심과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사랑》, 《초계급적 도덕》의 설교는 언제나 반동적 착취 계급의 선전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마음의 혁명》을 고창하는 《도덕적 재무장》론은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고통의 근원을 엄폐하며 그 제도를 변호하기 위한 하나의 날조된 《리론》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설교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악을 인정은 하나 결코 그것을, 그를 낳은 자본주의 제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회피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악페의 원인을 인간의 《자기 완성》의 결핍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재무장》을 설교함에 있어서 생활을 사랑하며 사회적 진보와 자유, 해방, 평등을 요구하는 인민 대중의 생활 감정을 도용하여 《혁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듯이 가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운하는 《혁명》은 낡은

사회의 변혁이 아니라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는 《마음의 혁명》인 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흑인과 백인이 포옹하며 백만장자가 가난한 로동자와 입맞추며 백인이 흑인의 구두를 닦아 주는 장면들을 보여 주는 미국의 영화들과 기타 예술 수단들이 널리 류포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이 《후진》 국가 인민들의 《벗》으로 되고 자본주의 사회는 더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변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설교자들은 식민지적 압박 밑에서 신음하는 인민 대중의 고통도 마치 그 어떤 《절대적 사랑》에 의해 가시여질듯이 선전하면서 식민주의자들과 식민지 인민들의 《협조》가 가져다 주는 《리익》에 대하여 굉장히 떠들어 대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이야말로 인민들의 고상한 생활 감정과 요구를 악용하여 그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술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이 어떤 《초계급》적인 리론인듯이 분장한다. 그들은 이 《리론》의 《공정성》과 《초계급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비방과 함께 죄악과 부패로 가득찬 제국주의의 현실도 《비판》하는듯이 가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있지 않으며 인간 본성의 근본적 개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도덕적 재무장》론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계급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실제적인 투쟁으로부터 대중을 물러 서게 하며 그 어떤 환상적인 기대에 얽매여 두려는 그들의 진의도는 온갖 사회적 해방 투쟁을 가장 악의에 차서 증오하고 있는 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오직 기만적인 《마음의 혁명》만이 사회적 악을 청산할 수 있다고 떠들면서 사회적 혁명,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에 대하여 온갖 비방과 중상을 다 퍼붓고 있다.

심지어 《도덕적 재무장》론의 창시자인 부크만은 《신의 령도 하에서의 파쑈 독재》에 대하여 공상하였다. 한때 파시스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부크만은 그에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방위 전선을 창조한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 준 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열렬한 축하의 전문을 보낸 일까지 있다.

특히 그들은 오늘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에 궐기한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면서 인민들의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적 죄행을 극력 은폐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에 대하여 선전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리론》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일찌기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생산력의 발전과 현존 사회 질서 간의 모순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배 계급의 사상은 더욱더 위선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정치 사상 령역에서 일대 위기에 처하고 그의 지배 체계가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는 현조건에서 낡은 제도를 《비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은 전례 없이 기만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 자본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란한 선전과 함께 제국주의 반동들에게는 생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인민 대중의 절박한 생활 감정을 악용하며 《혁명》이라는 구호를 도용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도덕적 재무장》론과 같은 기만적인 반동적 《리론》을 만들어 냈으며 그들은 이 반공 《리론》을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사람들의 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도덕적 재무장》론의 반동성은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 책동과 안팎으로 통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을 걸고 혁명을

팔며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바로 계급 투쟁 대신에 《계급 협조》, 《초계급적 인도주의》, 《만민에 대한 사랑》, 《영원한 것》 등등의 반동적 선전으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투쟁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제국주의 반동 이데올로그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인민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며 자기 세대를 다 산 자본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력사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온갖 반동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강력한 위력 앞에서 종국적으로 파산되고야 말 것이며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 제도는 조만간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박 충 배

근로자 제 1 호 (루계 239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월 3일　　발 행 • 1964년 1월 5일

ㄱ—430005　　값 40 전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206 호)

《맑스—엥겔스 선집》 제 2 권

판형 국판 페지수 591 페지

《맑스-엥겔스 선집》 제 2 권은 금년 초에 발행한 《맑스-엥겔스 선집》 제 1 권의 속편이다.

이 책에는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외곡하려고 한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력사적 필연성과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맑스의 로작 《고타 강령 비판》을 비롯하여 맑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 부분을 간략하게 특징 지은 엥겔스의 로작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새로운 세계관의 천재적 맹아를 내포하고 있는 최초의 문헌인 맑스의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 유물론적 세계관을 옹호하고 기초 지은 엥겔스의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을 사회 발전의 력사에 훌륭하게 적용하여 가족, 사'적 소유, 계급 국가의 기원을 천명하고 한 사회 형태의 다른 사회 형태에 의한 교체의 불가피성을 론증한 엥겔스의 저서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등 맑스와 엥겔스의 기본 로작들이 들어 있다.

또 력사적 유물론의 제 문제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주요한 서한 20 편이 들어 있다.

본 선집에 수록된 로작들은 맑스주의 원리를 정확히 리해하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에 있어서 필독 문헌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했다.